

도시철도 2호선 검증 안된 주장 무분별 확산 '경계령'

공론화 찬반 논쟁 가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검증이 안된 주장까지 무분별하게 제기되자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2호선을 추진중인 광주 시도 이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 내놓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가 검증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론화위 최영대 위원장은 10일 "2500명 규모의 1차 표본(설문) 조사를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여기서 추출된 찬반 비율에 맞춰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26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0명의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는 11월 9일과 10일 1박2일간 진행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250명에게 11월 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찬반 의견을 담은 속의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 자료집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찬반 양측이 각각 30페이지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를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정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명기해 시민참여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일부 검증이 안된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광주시·공론화위 대응 나서 23일까지 2500명 1차 조사

시는 "달랑 2건에 2조원", "다른 지자체는 지하철을 포기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한다", "시 재정이 열악해 복지, 교육 등에 쓸 예산이 없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2호선에 들어가는 2조579억원은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 41.9km에 달하는 순환선 전체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며 "차량은 최대 3량까지 가능하고, 배차 간격을 최소화해 대량수송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하철을 설치하고 지선 기능의 BRT 도입을 검토중이며, 재정 여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 일정이 최종 확정됐으니, 이제 공론화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에 달려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문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고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서 가장 높다

지난해 2만4259명 13.2% 업종별 음식점 가장 많아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의 폐업률이 가장 높음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화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10일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는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가동사업자(연도 말 계속 사업자와 휴업 사업자 수의 합계) 대비 폐업률은 11.7%로, 최근 5년 평균 11.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 최근 5년 평균 75.8%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지난해 16만3000명 폐업해 가동사업자 대비 18.8%, 신규 사업자 대비 92.7%의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광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지난해 2만4259명

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이어 울산이 13%로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게 조사됐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각각 42.2%, 56.3%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아직까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음식점과 제조업 분야의 신규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

2017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구분	폐업 사업자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
계	837,714	11.7	72.2
서울	173,334	11.4	79.0
인천	47,993	12.3	66.9
경기	214,344	11.8	66.8
강원	24,055	11.0	71.6
대전	23,812	12.3	79.9
충북	24,675	11.7	76.5
충남	32,691	11.6	70.6
세종	4,151	10.4	42.2
광주	24,259	13.2	80.5
전북	27,640	11.5	65.4
전남	27,039	11.1	68.6
대구	36,325	11.2	76.8
경북	40,150	11.5	75.3
부산	53,668	11.5	76.1
울산	18,288	13.0	77.8
경남	53,811	11.9	77.2
제주	11,479	10.2	56.3

* 출처 : 국세청

타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들 있어 세상은 더 나아지고 문명은 진보



(240)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곤 한다. 올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의 성과는 특히 암 치료와 관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했거나 진화의 열쇠인 효소-항체 연구라는 점에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는 노벨상 정신도 다시 새겨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전 인생을 걸고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류 문명은 좀 더 건강하고 한결 좀 더 진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프랑스 최고의 초상화가이기도 했던 자크 루

이다비드(1748-1825)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유명한 화학자 라부아지에(1743-1794)를 그림으로 남겨 앞선 시대 과학자의 면모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다비드의 '라부아지에 부부 초상화'(1788년 작)는 실험실의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소품들과 우아하기는 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어두운 타이즈와 세련된 옥양목을 차려 입은 과학자 부부를 완벽 한 파트너로 재현한 작품이다.

학창시절에 배워 우리에게 익숙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객관적인 실험결과로 이끌어냈던 라부아지에에는 산소를 '산소'라 명명한 과학자이기도 했는데 다비드에게 드로잉을 배우기도 했던 라부아지에의 부인 마리안이 "근대적인 부부상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여 그려진 그림이라고 한다.

당시 라부아지에에는 진보적인 과학자이자 지식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왕실을 위한 세금을 걷고 그렇게 걷은 세금의 상당액을 자신이 취하는 수세(收稅) 도급인이기도 해



다비드 작 '라부아지에 부부초상화'

서 부패 세금징수원으로 몰려 프랑스 혁명 시기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라부아지에 부인은 남편의 실험준비와 뒷정리 뿐 아니라 실험내용을 다비드에게 배운 드로잉 실력으로 묘사하고 책으로 출판해 그의 업적을 남기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부부 초상화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

장성황룡강 2018 노란꽃 잔치

10.12.(금)~10.28.(일) 장성군 황룡강 일원 17일간

개막식 10.12.(금) 18:00 장성공설운동장

이색체험 동물과 함께하는 오피스텔, 앵무새특별관

9월 22일 OPEN

특별정원 가을을 수놓은 꽃과 빛의 향연 황룡정원

도 대표축제 선정 2018 우수축제

옐로우 시티 Jangseong 장성군축제위원회

제리회 가을 백양산 풍류제

2018. 11.2.(금) ~ 11.11.(일)

국립공원 백양산·백양사 일원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백양산·백양사의 애기단풍 힐링로드에서 클래식, 통기타, 우리나라 전통 소리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장성군 우수 농특산물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장터도 준비합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 공모기간 : 9.1(토)~11.14(수)

■ 접수 및 문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062-228-4774

| 주최 | 장성군 | Jangseong

| 주관 | 장성군축제위원회, 백양단풍축제실행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